

##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0/22(주일) 설교 내용

히브리서 11:6-7

1. 오늘 설교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어떤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해가 짙짙 내리 쬐고, 비가 올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맘을 뿔뿔 흘리며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방주 짓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 손가락질은 그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도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순종은 계속 됩니다. 비가 그치고 여러 정황상 밖에 나가도 되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방주안에서의 갑갑한 생활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 법하지만,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하나님 앞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번 질문은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만 간단히 나눠주시고(순종에 대한 적용질문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2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번 질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 노아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예배일까요? 밑줄 부분을 참고하여, 내가 보완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목원들과 요한복음 4:23 말씀(목장교재 1페이지 중반에 색인부분)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아래의 세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잘 들어야 한다.

②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③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위의 세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목자가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설명해 주시면 목원들이 이해하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완해야 할 예배의 모습’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나누어 주십시오. ③번은 ‘피의 제사’라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노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인내, 또 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다짐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